

제공일자	2013. 7. 29(월)	담당자	전용식 부실장(동향분석실)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3775-9035, 010-9247-8637 총3매

제목 :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의 원인에 주목할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『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-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(이하 RBS), ING, Dexia, KBC,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 -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·축소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.
- RBS, ING, Dexia, KBC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,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.
-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자발적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.
 - 이 과정에서 아시아-유럽지역의 보험사업 매각과 보험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의 연계 등 사업범위 조정을 추진 중임.
-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원인은 ① 그룹의 신속한 회생(RBS), ② 보험사업 부실 정도(ING, Dexia, KBC), ③ 은행·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(ING, HSBC) 등으로 분석되었음.
 - 특히 은행·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

전망되는데,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임.

○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과 소매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 은행·보험업 겸영의 장점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이고, 이로 인해 유럽의 복합금융기관들이 보험사업을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은행·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,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와 동일 업종 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.

□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.

○ 인수·합병으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,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수요-공급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함.

○ 또한 2013년 말부터 바젤 III가 도입되고 2015년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,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.

첨부 : CEO Report 『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』 . 끝.